고란샤의 미술관과 쇼룸

주식회사 고란샤의 본사는 아리타 지역의 중요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 내 우치야마 지구에 있습니다. 전 미국 대통령 율리시스 S. 그랜트(*Ulysses S. Grant*, 1822~1885)의 임기 종료 후 세계 여행 중, 1879 년에 일본을 방문할 것을 대비해 1877 년에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. 아내인 줄리아 그랜트(*Julia Grant*, 1826~1902)는 고급 자기 수집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. 인근에 마땅한 숙박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랜트 부부의 아리타 지역 방문 시의 숙소로 당시의 서양 양식을 모방한 디자인의 3 층 건물이 지어졌습니다. 그러나 안타깝게도 콜레라가 유행했기 때문에 결국 부부는 아리타 지역을 여행하지 못했고 이 건물도 방문하지 못했습니다. 그 후 각 객실은 귀빈실과 외교 협상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었습니다. 메인 홀에 있는 샹들리에는 1876 년 필라델피아 만국박람회 때 구매된 것으로 천장을 촛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리타 도자기로 된 특별한 접시를 설치했습니다. 현재, 객실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.

고란샤의 원래 쇼룸은 1905 년에 인근 나가사키현 사세보의 건축물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지어졌습니다. 회사가 급격하게 확대되며 1936 년에 새로운 건물이 추가되었습니다. 본관 2 층에 있는 고란샤 고도자기 미술관에는 1800 년대 후반부터 1900 년대 초까지 회사의 전성기에 만들어진 작품과 궁중에서 사용된 물건 등 고도자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. 각 전시품에 대한 설명이 적힌 안내판도 아리타 도자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.